

+ 임석태 · EBS 스튜디오중계영상팀

캠코더 촬영

모델명 HDC-SD20



이미지 제공 : 파나소닉

필자는 심심할 때 캠코더를 가지고 많이 놀았던 기억이 있다.
 지나가다가 꽃이 핀걸 보면 한번 찍어보고, 집에 와서 어떻게 찍혔나 확인해 보고, 결과물에 아쉬웠던 부분은 다음 촬영에 수정하여 촬영하곤 했다.
 누구나 재미있게 캠코더를 가지고 놀다보면, 더 향상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캠코더 촬영이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취미가 될 것이다.



[영상 1]



[영상 2]

[영상 1, 2]는 외국의 유명 놀이동산이다. [영상 1]에서 [영상 2]의 주인공들에게 패닝 한 모습이다.



[영상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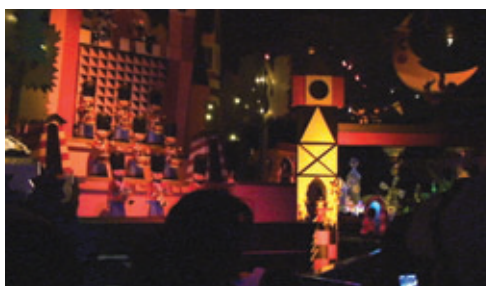


[영상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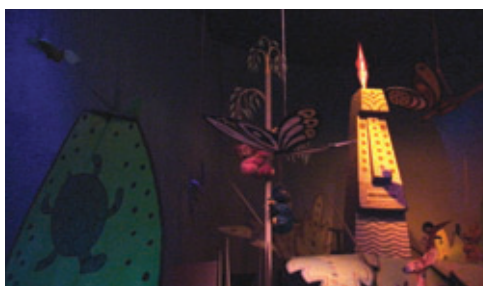
주인공들의 타이트한 얼굴 모습을 [영상 2]의 동일한 장소에서 보여주지 않고, 장소를 조금 움직여서 [영상 3]의 배를 타고 물길 위에 있는 상황에서 보여 주었다. 다양한 그림을 보여주려고 [영상 2]에서 두 명의 주인공 얼굴을 타이트하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조금 공간을 이동해서 [영상 3]의 위치에서 주인공의 얼굴을 보여 주어도 괜찮다. 전체적으로 놀이공원이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바꾸면서 어느 공간에서나 촬영을 해도 영상의 연결이 어색하지 않다. [영상 4]는 물길을 지나는 모습을 뒤에서 촬영했다.

촬영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주인공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게 된다. 가령, [영상 2]에서도 좌측 두 명의 주인공을 풀샷으로 촬영하면 타이트한 영상을 촬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영상 2]의 주인공들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여자와 남자 주인공의 타이트한 그림을 촬영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넓은 그림 다음에 그 자리에서 타이트한 영상을 일일이 촬영할 수는 없다. 장소를 옮겨서 주인공의 얼굴 모습을 촬영해 주는 것도 촬영 실력에 향상을 가져다 준다. 물론, TV드라마는 거의 동일한 위치에서 넓은 그림과 타이트한 그림을 연속적으로 촬영해 주지만, 다큐는 공간을 조금씩 이동하면서 영상의 사이즈를 다르게 해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영상 5]



[영상 6]

[영상 5, 6]은 조명이 있는 터널을 지나가면서 촬영한 모습이다. 놀이동산 자체 조명이 예쁘게 나온다.



[영상 7]



[영상 8]

[영상 7]은 미국 애너하임에 있는 유명한 놀이동산의 전경이다. 전경을 찍을 때 조금 더 뒤에서 촬영하였으면 탑의 꼭대기가 잘리지 않았을 것이다. 영상으로는 조금 아쉽지만 촬영의 편의와 타협했다.

[영상 8]은 주인공이 뭔가를 촬영하려는 동작이다. [영상 8]처럼 주인공이 별로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타이트한 모습을 수시로 촬영해 주는 것이 좋다.



[영상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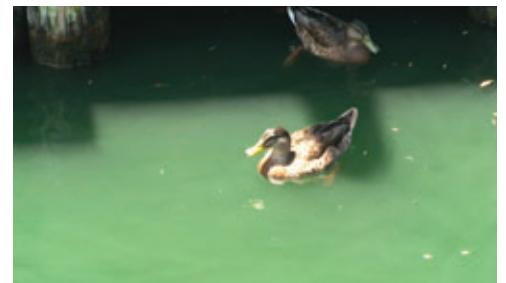


[영상 10]

[영상 9]는 놀이기구가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다. 중간에 부녀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여서 그들을 팔로우하다가 [영상 10]으로 줌 아웃 했다. 주인공의 모습과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물들도 적절하게 촬영하여 내용을 다양하게 만들어 준다.



[영상 11]



[영상 12]



[영상 13]



[영상 14]

[영상 11~14]는 주인공이 배를 타고 가면서 오리와 식당을 바라보는 설정이다. [영상 12~14]는 배를 타고 가면서 [영상 12]의 물에서 노는 작은 오리로부터 줌 아웃을 하여 [영상 13]을 지나 최종 그림인 [영상 14]까지 만들어 보았다. 배를 타고 가면서 촬영하는 것은 동작이 부드러워 마치 바닥에 레일을 깔고 촬영하는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영상 15]



[영상 16]



[영상 17]



[영상 18]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지나가면서 사이즈를 다양하게 하며 영상을 구성해 준다.



[영상 19]



[영상 20]

[영상 19, 20]처럼 방안에서 이불놀이를 하는 아이의 모습도 재미있는 소재가 된다. 이처럼 소재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일상을 수시로 촬영하다 보면 촬영 스킬이 향상된다.



[영상 21]



[영상 22]



[영상 23]



[영상 24]

[영상 21~24]는 눈을 좋아하는 주인공이 노는 모습이다. 작은 손을 클로즈업 한 그림이 영상의 편집점으로 이용하기가 좋다. 항상 타이트한 영상을 무엇으로 하여 촬영할까를 생각하면서 촬영하는 것이 좋다. 그네를 타는 모습은 같은 사이즈로 팔로우를 해주었다. 캠코더 촬영은 이렇게 참 단순할 수도 있다. 몇 개의 안정적인 영상으로 내용이 구성된다. 촬영을 쉽고 재미있게 하려면, 일상의 간단한 소재를 자주 촬영해 보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다보면, 촬영방법이 향상되고, 영상을 단순화 시킬 수 있다.

[영상 21~24]의 실제 원본은 4개의 샷만으로 구성하지는 않았다. 몇 개의 영상이 더 있지만 결국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보자의 경우라도 앞의 영상과 같은 구성을 하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비슷하게 따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구도를 정할 때는 항상 눈의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영상 21]과 같이 넓은 그림일 때의 눈의 위치와 [영상 23]처럼 타이트한 그림에서의 눈의 위치를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좋은 공부 방법으로는 드라마 시청을 할 때 인물의 눈의 위치를 유심히 보다보면, 인물의 구도를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동안 몇 회에 걸쳐서 캠코더 촬영의 기초가 되는 것을 설명해 보았다.

사실 이 글을 읽는 독자의 대부분은 방송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기에 필자보다 영상에 관한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필자가 가정에서 캠코더로 촬영하면서 생각하던 작은 부분들을 어찌면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 누군가는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